新 랜드마크 · 기부 확대로 다시 뛰는 東國

5월 선포된 '에너자이즈 동국'
'안정적 재정 기반' 핵심과제
'동국 1 · 1 · 1' 캠페인 브랜드화
매년 1000구좌 참여 유도 계획

랜드마크 로터스관 건립 '박차'
교육 · 연구 공간 확대 절실해
2012년부터 매입 · 설계 추진

725억원 투입되는 대작불사
교육 · 통학 환경 개선 도움돼
종단 지도자 · 동문 기업 관심을



동국대 중문 일대에 세워질 로터스관 조감도. 현재 동국대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관 건립을 위한 기금 모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과 함께 새로운 랜드마크 건립불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동국대는 "중문 일대 새로운 랜드마크인 로터스관 건립을 위한 종단 및 동문 기업 모연을 시작한다"면서 "안정적 재정 마련을 위해 소액 정기 기부 캠페인 '동국사랑 1 · 1 · 1'을 브랜드화하는 등 적극적 모금사업을 펼치겠다"고 최근 밝혔다.

모금 사업 아이템 다양화

지난 5월 새 비전인 '에너자이즈 동국(Energize Dongguk)'을 선포한 동국대는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안정적 재정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동국대는 △기부금 모금 대상 확대 △기부 아이템 다양화 △동국사랑 1 · 1 · 1 브랜드화를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금 대상자 확대를 위해 동국대는 명상과 사찰음식, 연극영화 등 학내 주요 콘텐츠를 활용해 국내외 유수기업 및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모금사업을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동국 후원의 집' 명판 수여와 학교 홈페이지에서의 홍보를 통해 캠퍼스 주변 상인들에게 학교 발전 기금 기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동국대를 대표하는 굿즈(goods)를 개발하고 모금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기부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정기 소액 기부 캠페인 '동국사랑 1 · 1 · 1'을 대표 브랜드화하는 방안도 주목할 만 하다. 동국대는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 마스코트 제작 △학생 홍보대사 운영 △동국사랑 어워드 개최 △캠페인 브로셔 및 소식지 제작 △SNS 및 홈페이지 홍보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1000구좌 이상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게 동국대의 목표다.

동국대 관계자는 "주요 동문 모임별 단체가입을 요청하고 교내외 상인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계획 중"이라며 "모금된 기부금은 기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사용 내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환경 개선 시급 과제

이와 함께 동국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불사는 '로터스관 건립'이다. 동국대 중문(혜화문) 일대에 연면적 2만4751㎡, 지상 2층, 지하 6층 규모로 건립되는 '로터스관'은 동국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동국대가 로터스관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서다. 그간 동국대는 문 · 사 · 철(文 · 史 · 哲), 즉 인문학 분야에 강세를 보여 왔다. 그러면서도 〈한국경제신문〉이 발표한 '이공계 대학평가'에서는 종합 12위에 올랐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공계를 집중 육성해온 결과로 평가된다. 실제 동국대의 연구비 입금액도 700억 원대를 돌파했다.

이공계 약진에도 동국대는 '공간 부족'이라는 문제로 세밀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강의실과 연구 · 실험실을 계속적으로 확충해야만 교육연구 경쟁력이 향상되고 혁신적인 성과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교사는 포화상태"라고 밝혔다.

교육 · 연구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어렵다보니 자연히 '학생 복지'와 관련된 공간 마련은 더욱 요원하다.

고질적인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과 새로운 랜드마크 건립,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동국대는 지난 2012년부터 중문 일대에 건물 신축을 추진해왔다. 건립 예정지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 중문 일대 주택 및 국유지 매입, 기획설계 용역 및 지질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완료했으며, 2018년 3월에는 신축건물 명칭 공모를 통해 '로터스관'으로 명칭을 확정했다.

현재는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30개월이다.

로터스관 어떻게 구성되나

동국대의 새로운 랜드마크 로터스관은 어떻게 구성될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홀이다. 동국대는 이 같은 컨벤션 시설을 통해 국제적인 학술대회나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고 졸업식, 동창회 행사 등 동국인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다른 대학과 달리 동국대 내에는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이 없다. 현재 입학식은 장충체육관에서, 졸업식은 석 · 박사 학위자만을 대상으로 중강당에서 소규모로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로터스관이 완공되면, 해외 명문 대학처럼 졸업식 때 학부 졸업생들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 외부 명사의 강연을 듣는 모습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터스관 내에는 첨단 시설을 갖춘 박물관과 113년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학교 역사관도 들어선다. 보행로 평탄화 작업과 동호로 방면의 차량 출입로 신설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환경과 외부인들의 방문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재학생 이서진(경영학과2) 씨는 "매일 아침 대중교통으로 학교에 오면 다시 언덕길을 올라야 해서 너무 힘이 들었다. 로터스관이 건립되면 평지를 걸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통학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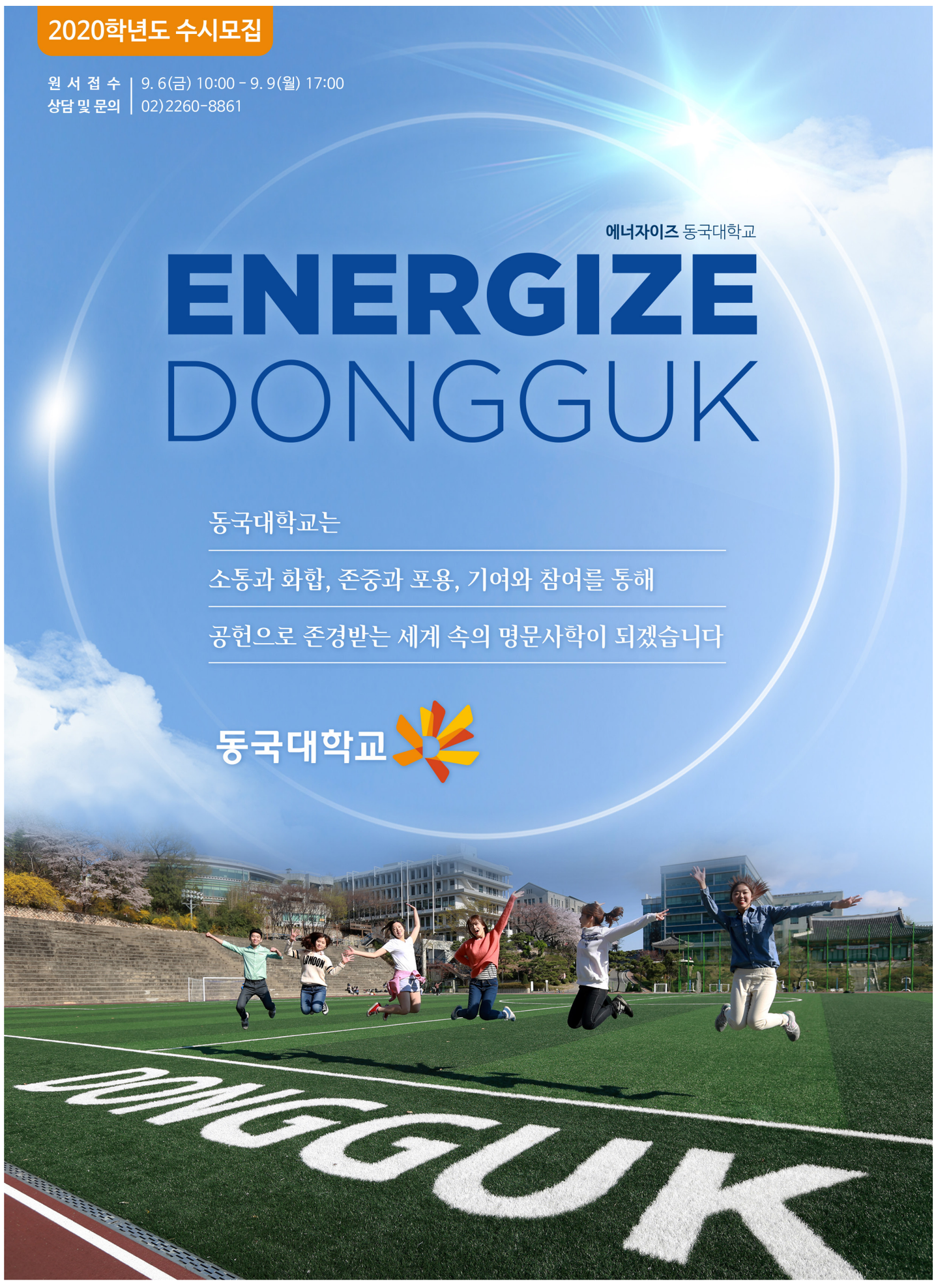
로터스관 건립 기금 모연 '숙제'

로터스관 건립의 최대 숙제는 기금 마련이다. 로터스관 건립에는 약 725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는 로터스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14년 '건립불사 선포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대대적인 기부금 모금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도 동문, 스님, 불자, 기업체, 학부모, 교직원 등 많은 이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불교계에서는 충원사 주지 자도 스님이 10억 원을 쾌척한 것을 비롯해 내원정사 주지 정련 스님,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영일암 주지 현응 스님, 길상선원 주지 원명 스님, 숭림사 진락 스님 등이 기금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 운문사 · 통도사 등 사찰과 불자 기업인인 이근창 한양스틸프라자(주) 대표이사 등도 기부에 동참했다.

동문 기업인 중에서는 전순표 ㈜세스코 회장, 김진문 신성약품(주) 회장, 송석환 동진기업(주) 회장, 서정호 앰버서더호텔그룹 회장 등이 기부에 동참했다. 현재 교직원들과 동문, 스님, 신도들이 십시일반 기부에 동참해 모연된 기금은 84억 원이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로터스관 건립은 향후 4년간 전개될 교육 · 연구 부문의 혁신을 하드웨어적으로 뒷받침해 학교 발전의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로터스관 건립을 통해 세계 100위 학과 육성, 국내 대학 10위라는 목표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불교계와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불자 · 동문 기부, 동국 발전 견인차

학교 발전에 함께한 기부자들

1906년 개교한 동국대는 불교계 선지식들의 교육구국의 원력과 소중한 정재를 바탕에 두고 있다. 이후 113년의 역사 속에서 학교 발전을 이끈 것은 불교 인재 양성의 원력과 기부 전통이었다.

한국전쟁 직후 소나무 판자로 지어진 임시강의실에서 수업이 이뤄지고 있을 당시 동국대는 부족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 본관(현 명진관)을 건립했다. 건립 과정에서 후원회와 학부모, 학생들의 기부는 결정적 도움이 됐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불교계 최초 종합병원을 짓기 위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동문, 불교계, 교직원 등 총 6,500여명이 기부에 참여해 총 114억 원을 모금했다.

2012년에는 고질적인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소유의 대운동장과 수영장 토지 매입 계획을 세우고, 재원 마련을 위해 '땅 한 평 갖기'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2만3499㎡(7,100여 평) 면적의 부지를 매입했다.

2014년에는 미래 유망분야인 바이오 · 메디컬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에 '바이오관'이 완공됐다. 바이오관은 동문인 정상영 KCC 명예회장(법학 55)이 118억 원을 기부해 건립됐다. 이에 동국대는 건물 이름을 '상영 바이오관'으로 명명 · 예우했다.


한국전쟁 직후 부족한 교사를 확충하기 위해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모연한 기금으로 현재 명진관이 건립됐다.

동국대 대각전은 1만불(佛)의 부처님 봉안불사로 유명하다. 1997년 개원 이래 매년 학교 후원자들의 원불을 모시는 봉안불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총 7,767불의 부처님을 모셨다. 목표인 1만불까지는 총 2,233불만 남겨놓고 있다.

동국대 관계자는 "동국대의 역사는 '기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스님, 동문, 불자들의 기부는 동국대 발전을 이끌어왔다. 앞으로도 '동국사랑 1 · 1 · 1' 등 동국대 기부 캠페인에 스님과 동문, 불자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